

전북 대도약 위해 절차탁마

도, 주요부처 찾아가 국가예산 확보 총력 매진

전북도는 대도약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절차탁마(切差琢磨) 의지를 담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송하진 도지사가 연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아 2020년 국가예산 및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실국장 등 30여명이 총출동해 주력사업 체질개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등 필요한 지역 현안 등 35개 사업을 기재부 예산심의관별로 집중 설명했다.

이어서, 9일에는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행안부 등 부처 예산반영의 키(Key)를 가지고 있는 국·과장을 방문하여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부 추경 및 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및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한남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영수 도로국장, 해수부 오윤열 한남국장 및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

등을 찾아 국토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년)'에 부차대교 건설 등 우리 도 구간 30개소 이상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 3개소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 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정부추경에 포함된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의 전역 국비사업추진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원 반영, 대형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여건조성을 '군산항 신규지정 항로구간(정미차~입구부) 적기 준설' 설계 용역비 20억원, 어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불평을 초래하고 있는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의 예타통과 건의와 함께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사업'의 공모선정을 적극 요청했다.

덧붙여 전북 역사·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으로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류 1번지 조성을 위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옛 전라도 4개 시도(전북, 광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천

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국비 5억원과 2017년도부터 추진해온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3개 핵심사업 국비 237억원 반영 등을 건의했다.

재정분권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있는 자원배분 마련장치 필요성 건의를 위해 행안부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을 찾아 지방소비세 증액분에서 균등 지방이양 재정감소분,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운영 및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시 지역 균형수요 지표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전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가 기재부 예산제출기일인 5월 31일까지 국가예산 특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여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반영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북도는 16일 정부부지사, 23일 행정부지사, 실국장 주 2회이상 방문활동 등 부처를 문이 닳도록 방문하여 국가사업 필요성,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9일 부안 석불산 일원에서 14개 시·군이 참가하는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산불발생 현장 대응력 강화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기계화진화장비 시스템 운영체계의 정착과 산불 초동진화 태세확립을 위해 14개 시·군 산불관계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환자... 예방 관리 중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도내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치매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75만명이며, 전북도는 3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11.33%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864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 5596명, 군산 4575명, 정읍 3453명 등 순이지만 인구수에 따른 유병률로는 임실이 13.08%(1265명)으로 가장 높았다.

도 보건당국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 대상 집중검진과 치

매검사 미수검자를 발굴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치매예방관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이 협력해 치매 걱정 없고 노년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발굴한다

전북학연구원 개소식·공동세미나 열려... 황토현전승일 기념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전북연구원 별관 3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북학연구원 개소식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학연구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홍보하는 자리이다.

전북학연구원 개소식에는 운동목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국주영은 전라북도의 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식 대구경북연구원장, 정초식 충북연구원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등 도내 학계 및 민간기관, 각 시군 관계부처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공동세미나는 전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충북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전북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기념 공동세미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일, 황토현전승일) 제정을 기

념하여 역사적 관점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정책연구 차원의 접근을 위해 기획되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책적 접근을 위해 기념일 제정의 의의 및 지역발전방향을 살펴보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 및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기조강연에는 '동학농민혁명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나섰다.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무장투쟁'을 소개하여 동학농민군이 가진 정확한 시국인식, 혁명을 일으키는 목적과 대의, 열린 자세 등을 통해 이것이 현재까지 미치는 울림을 다시 상기했다.

이를 시작으로, 김양식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했

다.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기념일 제정 논의 과정, 국가제정일 제정의 의의를 살펴봤다. 특히, 앞으로 정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참여자에 대한 국가 서훈, 국가적 차원의 기념공간 조성 및 조사 연구 등을 예로 들었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지역 간 연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현대적 계승을 위한 브랜드 전략과 전국 단위 연계 사업의 추진 등 정책적 접근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혁명정신 계승과 국제연대, 현실 실천 행사 개최 및 혁명투쟁·인본치유길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마무리된 뒤에는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을 좌장으로 하여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광종무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 연구소장은 동학의 인본주의적 평화 사상에 주목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초 노동법 교육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9일 7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노동법 전문 강사인 강호석 공인노동사가 강사로 나서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근무제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관련법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교육을 실시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한걸음 더 가까이

고창군, 문체부 주관 지역관광협업센터 공모 선정 맞춤형종합서비스제공으로 관광경쟁력 한층 강화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가칭)지역관광협업센터' 공모사업에서 고창군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관광생태계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관광의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시·군·구) 지역관광협업센터가 지역관광사업자, 지역관광조직(DMO), 관광두레(D), 관광벤처기업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 조성이 필요했다.

지역관광협업센터는 올 연말까지 총 6억원을 투입하여 회의실, 전시실, 비즈니스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으로 지역관광환경개선, 관광콘텐츠 확보, 지역관광연계망 구축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